

총기 53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 종령 유시문

## 종조님 창종정신 계승·발전 시켜야



종령 지성 대종사

오늘은 상반기 진호국가불공을 회향하는 날입니다. 49일 동안 '진호국가 불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옴흠야호 사 수호국계주 진언'을 염송한다는 것은 나라와 선망부모 조상님을 위한 마음으로 오로지 청정일념으로 정진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9일 동안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과 법문이 다소 있었겠지만, 그것은 모두 내 입장을 소멸하는 수행이며, 나의 그릇을 키우는 법문이고, 마음자리를 더욱 넓히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공에 전념하고 염주와 진언을 놓지 않으신 모든 보살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종조님께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어려워진 나라 살림과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살피시고, 오로지 호국불교, 정통밀교를 통한 가르침과 수행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총지

종을 창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총기 4년 춘계강공에서 수호국계주경법을 근거로 한 진호국가 불사의례를 제정하여 스승과 교도가 다 함께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진하기로 결의하셨습니다.

스승님과 교도들은 총지중의 종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종조님의 창종정신을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종조님의 구국도생과 중생제도의 대비원, 그리고 선대 열반 스승님들의 수행정신이 오늘의 총지중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수행자로서의 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단발전은 개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토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뼈를 깎는 각오 속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무릇 송곳 끝에 앉은 긴장감과 날카로운 자기반성으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화합은 종단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를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승단과 교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종조님의 창종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교상과 사상을 더욱 확립, 발전시키고, 총지중의 수행법과 의례를 더욱 여법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반기 49일 회향일에 동참하신 보살님의 가정마다 복락이 가득하시고, 일체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후.

총기 53년 4월 8일  
불교총지중 종령 지성 합장

## 사감원, 총기 53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 실시

### “종무행정 벤치마킹도 필요” 종무원 책임 강조

총기 53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가 지난달 20~21일 양일 간 역삼동 총본산에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는 사감원장 범일 정사를 비롯해 사감위원 묘홍, 지현 전수, 서강, 법선 정사가 참석하고,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배석했다.

통리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등을 대상으로 총기 52년(2023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구매계약, 예산운영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준비된 자료와 교무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감원장 범일 정사는 “종무원들이 종무행정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회사나 또는 공무원들이 사무행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 종단



도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데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감사에 앞서 사감위원들은 통리원 3층 종령실을 찾아 종령 지성 예하를 예방했다. 자리에서 종령 예하는 “이제는 지도하는 감사에서 앞으로는 격려하는 감사, 힘을 주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칭찬할 것을 많이 발굴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감사결과와 감사위원들의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되면 절차에 따라 다음 중앙총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제167회 임시총의회 부산 정각사서 개최

### 3월 12일, 총지사 승강기 설치 결의 등



총지사 승강기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달 12일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된 제167회 임시총의회에서는 총지사 승강기 설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석 총의원 만장일치로 사업승인을 결의했다. 이로써 총지사 승강기는 본격적인 설치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인허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의회 의장 범상인 전수를 비롯해 14명의 총의원이 참석한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이날 1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이사 해광 정사(시법사 주교)와 오는 5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 묘홍 전수(삼밀사 주교)에 대해 연임을 의결했다.

### 종/조/법/어

고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고 남에게 구하지 말 것이다. 곧 참회하고 원한을 없앨 지니라.

### 지면안내

4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5면 왕생법문

7면 총지중의 역사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㉔

##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 추대법회 봉행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3년 4월 16일(화) 오후 2시

장소 \_ 불교총지중 본산 총지사







특경 정사의  
총지 돋보기

### 준제관음보살 ㉠

준제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변화관음인 육관음 가운데 한 분이다. 육관음은 관세음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여섯 분의 관세음보살로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십일면관음, 준제관음, 여의륜관음이다.

준제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어찌하여 준제관음보살을 불모라고 한 것일까? 그 까닭은 준제보살이 우리의 청정한 근본 마음자리이기 때문이다. 경전에 의하면 준제보살의 모공에서 모든 부처님이 생겨났다고 한다. 준제보살의 모공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어머니의 몸과 같은 존재로서 일체 제불보살을 출생시키는 곳이다. 불모는 부처를 낳고 양육하는 부처의 어머니로서, 불교에서는 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야경』에서는 반야지가 불모로 표현되고, 『열반경』에서는 불성이, 선종에서는 무심을 불모로 보고 있으며, 『준제경』에서는 청정을 불모로 삼고 있다. 준제보살의 모공은 바로 청정을 뜻한다. 준제를 산스크리트어로는 춘다라고 하며 청정의 뜻이다. 그러므로 춘다, 준제보살의 모공은 바로 청정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준제보살의 모공에서 모든 부처님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체 불보살은 청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청정은 불보살뿐만 아니라 수행자 또한 예외일 수가 없다. 청정에서 일체서원을 이루고 일체지를 증득할 수 있다.

준제보살을 일러서 준제불모, 칠구지불모라고 부른다. 칠구지는 칠역이라는 뜻이며 칠구지불모는 칠역 부처님의 어머니를 의미한다. 즉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준제보살이 모성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불모라 하는 것이다. 칠구지라는 말에서 준제관음보살의 덕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준제보살의 모성적 자비와 덕이 참으로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어여뵈여기고 보살피듯 이 일체중생들을 두루 보살피고 구제해주는 모습이다.

준제보살의 형상도 천수관음보살이나 다른 관음보살과 다를 바 없이 여러 개의 팔을 지니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본신을 제외하고 변화 관음의 모든 보살은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개의 팔을 지니고 있다. 준제보살 또한 여러 개의 팔을 지니고 있는데, 전형적인 형상은 세 개의 눈에 열여덟 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 세 개의 눈은 중생의 세 가지 장애인 미혹과 죄업과 괴로움을 바르게 보라는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열여덟 개의 팔은 세 가지 장애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 개의 눈에 두 팔이나 4, 6, 8, 10, 32, 82개의 팔을 지니기도 한다. 상황에 근거,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한 모습이라 이해할 수 있다.

준제보살의 손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들려져 있는데, 이것은 모두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열여덟 개의 손 가운데 가슴 앞의 두 손은 설법인-차유 띠를 맺고 있고, 오른쪽 8개의 손은 시무의 인-검-수주-과실-부(도끼)-구(갈고리)-오고저-보만(보배덩굴)을 쥐고 있고, 왼쪽 8개의 손은 여의보당(보배깃발)-연화-조관(씻는 물 그릇)-색(맛줄)-륜(라(소라)-현병(지혜 향아리)-경전을 지니고 있다. 이 도구들로 준제보살은 중생의 재앙을 없애주고 일체소원을 성취시켜주며, 때에 따라 수명을 연장시켜주며, 지식을 구하는 이의 원을 성취시키고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

준제보살의 진언을 갖추어 부르면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다. 이를 ‘칠구지불모준제다라니’라고도 하고 줄여서 ‘준제다라니(준제진언)’라고 부른다. 진언은 ‘나무 싹다남 삼막삼 못다 구치남 단야 타 움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이다.

“진언 하나를 지송해도 속히 성취할 수 있는데 어찌 많은 진언을 제시하면서 또 준제진언을 사람들에게 지송하라 하는가? 준제는 일체 모든 진언을 총섭하는 고로 준제진언은 능히 모든 인연을 포함하고 있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 중에서

## 신인록 보살 49재 천도불공

### 정각사서 300여 사부대중 극락왕생 서원



한평생 진언행자로 정진해오다 지난 1월 24일 입적한 부산 정각사 신인록 보살의 49재 천도불공법회가 지난달 19일 정각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등 스승과 교도 300여 명이 참석해 동참 대중의 원력으로 신인록 보살 영시의 극락왕생과 구경성불을 한마음으로 서원했다.

신 보살의 손주 노동준 군은 목관약기인 바순으로 추모곡 ‘힘(Hymn)’을 연주해 마

지막 가시는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애뜻한 마음을 담아 전했다.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는 “평생을 오직 부처님 법에 의지하며 정진과 교화에 임하시던 신인록 보살님이 아미타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인연을 정리하시고 서방정토로 가셨다.”며 “먼길 마다않고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동참한 스승 및 교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 종령 지성 대종사 서울경인지회와 한자리

종령 지성 예하는 서울경인지회지회(지회장:박정희)가 지난달 3월 19일 총지사에서 개최한 간부회의 자리를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를 나눴다. 이날 종령 예하는 “종단의 미래는 교화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종단의 역사이고, 또 앞으로 종단을 이끌어갈 실 아주 중요한 분들이다. 종조님의 말씀을 늘 가르침으로 삼고 말으신 바를 해오신 대로 열심히 정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총지사 박재원 기자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제1회 이사회 개최

### 2023년도 사무국 결산 해광 정사 이사 연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통리원에서 총기 53(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재단사무국 결산과 2024년도 재단사무국 1차 추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4월 1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해광 정사(시법사 주교)에 대해 재선임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결산서에 따르면 종단이 지난해 저소득층, 재난복구, 장애인복지 등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과 재단 산하 어린이집, 복지관 등 위탁시설에도 재단 전출금과 함께 후원금 8



천여만 원이 회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초 보고된 2024년도 예산에서 이월금을 28.2% 증액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 우인 정사는 회의 자리에서 “개인이나 가정, 사회 모두가 경제적으로 다

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정성어린 꾸준한 후원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분들의 마음을 잘 살피서 후원의 취지를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단이 투명한 행정으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택)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 종단협, 10년 만에 회원 종단 현황 조사한다

## 3월 26일 이사회, 한일불교 정기총회도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1차 이사회 및 제6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4년 이후 10년 만

에 변화된 회원 종단의 현황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회원 종단의 의전 서열 정립, 재난 발생 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한 회원 종단 현황을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또 불기 2567(2023)년도 결산을 비롯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종단협은 지난해 일

반회계 11억 5,643만원, 특별회계 7억 2,408만원 등 불기 2567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신임 상임이사에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전 스님을, 신임 이사에 미타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월공 스님을 선출했다.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7~8월)는 중국 오대산으로 결정했으며, 회원 종단 연수 교육은 5월 28~2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2월 21일 화재로 전소한 조동종 총본산 수락산 도선사 대웅전 복구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이날 '제44차 정기총회'를 열어 불기 2567(2023)년 결산 및 불기 2568(2024)년 예산을 승인했다. 한일불교는 지난해 일반회계 4억 8,549만원, 특별회계 1억 678만원의 결산을, 올해 일반회계 3억 7,970만원, 특별회계 4,300만원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정각회, 신춘법회 봉행

## 3월 6일 국회의원회관서

“국회에서 나라가 태평스럽고 국민이 평안한 국태안민을 이룰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3월을 맞아 신춘법회를 열고 국태안민과 국민 행복을 발원했다.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3월 6일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국회정각회 신춘법회'를 봉행했다. 신춘법회에는 통일위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과 정사, 불교단체장, 정각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 BTN,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임원 변경, 대차대조표 원안 통과

BTN불교TV 신임 이사에 천태종 총무부장 갈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이 선임됐다.

BTN불교TV는 3월 29일 개최된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각 종단 임원 변경에 따른 이사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BTN불교TV 회장 무봉 성우 대종사와 진각종 총무원장 도진 정사,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을 이사에 재선임했다. 또 주주총회는 제30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신(神) 중심의 종교

지혜의눈

## 종교에 의해 평화가 달성될 가능성은 없어 자신들의 '신' - 절대적 가치기준을 버려야

과학자들이 인공 뇌를 만들고 여기에서 눈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실험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상으로 눈은 뇌의 일부로 처음에는 빛에 반응하다가 진화를 통해 점차 눈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사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물의 일부만 보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 물체의 형상과 색채를 보지만, 뇌의 작용에 의해서 비로소 대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사물의 일부만 가지고 나머지는 뇌가 이룰 것이라고 추론하여 완전한 형태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산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노끈을 보고 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속이고 뱀은 위험한 동물이라는 평소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노끈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사물을 인식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생물들의 생존을 위한 진화과정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뇌가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 신념과 같은 창(窓)을 통해 사물과 사건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뇌의 보정작용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학(大學)에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視而不見)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 또는 머문다는 의미의 주(住)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起心)이라고 할 때 주(住)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대

상을 내 의지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행위와 최근의 뇌과학과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인식과정의 내용과 비교해도 대단히 유사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금강경의 사구계를 어떤 기준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재를 인식하는 자아를 설정하는 구조가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인식론이 비판을 받으면서 객관적 실재가 부정되고, 더불어 자아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가 점진적이고 낯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실재가 허구라는 주장과 자아(自我)가 부정된다는 주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상주(常住)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계가 구성된다는 주장에 의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대상이 다름아닌 신(神)입니다. 더 이상 신을 전제로 하는 세계관은 존립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원인으로 종교적 갈등을 거론하는데, 그동안 해결 가능성이 없어보였습니다. 여전히 신(神) 중심의 종교가 현대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례를 살펴봐도 그러한 종교에 의해 평화가 달성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평화는 자신들의 신을, 절대적 가치기준을 버려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칼럼니스트 김태원

# 제102회 춘계 강공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3년 4월 17일(수)~18일(목) 1박2일

대상 \_ 불교총지종 전 스승 | 장소 \_ 본산 통리원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 지극한 예배의 대상, 제불보살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수행 통로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6. 만다라(曼荼羅)의 기초지식(基礎知識)

만다라는 한역(漢譯)으로 구역(舊譯)에서는 단, 신역(新譯)에서는 윤원구족(輪圓具足), 취집(聚集)으로 역하고 단(壇)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시대와 함께 점차로 통합하게 되었다. 인도의 만다라에 대해서는 「일부불정운왕경(一字佛頂輪王經)」과 「만다라경(曼荼羅經)」 등에 '금강지(金剛智)와 선무외삼장(善無畏三藏)시대(時代)에 인도의 그림으로서 만다라가 있었다.' 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보존된 것이 없다.

일반으로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대정장제대正藏第 28권 813-6)」에 상세히 기록된 것처럼 흙을 뜬우어 단(壇)을 모으고 향(香)을 바르는데 다음 그 위에 만다라를 그린 것인데 이것을 「토만다라(土曼荼羅)」라고 한다. 그 작법은 칠일작단(七日作壇)이라고 하여 최초로 계선(界線)을 그어서 최후에 아사리(阿闍梨)가 존상(尊像)을 그려 모실 때까지 7일이 걸린다. 만다라가 되면 거기서 엄숙한 관정의식(灌頂儀式)도 행하고 식재(息災)나 증익불공(增益佛供)도 한다. 불사가 끝나면 만다라는 곧 헐어버리는 것이 통례나, 이러한 토만다라(土曼荼羅)는 수법(修法) 때마다 만들었다 헐었다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결연관정(結緣灌頂) 때 투화득불(投華得佛)에 쓰기 위해서 부만다라(敷曼荼羅)를 만들어서 현재도 일본에 남아 있다. 최고의 예는 일본국 동사(東寺)에 현존하는 채색본으로서 세로의 길이가 280cm의 큰 것이다.

양계만다라(兩界曼荼羅)는 대일경(大日經)에 의한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와 금강정경(金剛頂經)에 의한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의 두 가지가 있다. 대일경은 7세기 반경에 서남인도에서 성립되었으며 금강정경은 남인도에서 8세기 초에 성립되었다고 한다.

태장계만다라는 대일여래의 이법신(理法身)을 표현하여 불(佛)의 대비(大悲)를 태장(胎藏)에 비유한 생령 그 자체의 세계관이다. 12대원(大院-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변지원遍智院, 지명원持明院, 금강수원金剛手院, 관음원觀音院, 석가원釋迦院, 문수원文殊院, 제개장원除蓋障院, 지장원地藏院, 허공장원虛空藏院, 소실지원蘇悉地院, 최외원最外院)으로 되어서 414존(尊)을 모시고 있다.

금강계만다라는 일본의 진언밀교(眞言密敎)에서는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를 쓰고 천태밀교(天台密敎)에서는 성신일회(成身一會)의 만다라를 쓰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구회(九會)는 천축수의(天竺隨宜)의 설(說)이라고도 한다. 대일여래의 지법신(智法身)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강(金剛)은 각오한 지혜의 신체가 견고하여서 모든 물체를 쳐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구회(九會-성신회成身會, 삼매야회三昧耶會, 미세회微細會, 공양회供養會, 사인회四印會, 일인회一印會, 이취회理趣會, 강삼세갈마회降三世羯磨會, 강삼세삼매야회降三世三昧耶會) 만다라는 1,461존(尊)을 모시고 있다. 만다라 제작을 최초로 기술한 책으로는 「성령집(性靈集)」이란 책 7권이 있다.

만다라 중에는 별존만다라(別尊曼荼羅)와神通미술(神通美術)의 만다라도 있다. 밀교에는 현세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법(修法)에 네 가지(식재息災, 증익增益, 경애敬愛, 항복降伏)가 있다. 한재(旱災), 홍수(洪水), 지진(地震) 등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부터 치병(治病), 화재(火災), 장수연명(長壽延命), 번영(繁榮), 원적퇴산(怨賊退散) 등의 소원(所願)을 이루기 위하여 개별본존(個別本尊)이 필요하였다. (이하 별존만다라 내용 중략)

우주와 삼라만상에 대한 만다라관 및 법신불(法身佛)의 체(體), 상(相), 용(用), 밀교(密敎)에서는 우주와 인간과 모든 삼라만상의 구성요소를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식(識)의 육대(六大)라고 간주(看做)하고 모든 성주과공(成住壞空)은 모두 육대연기(六大緣起)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전체를 법신불의 당체라고 본다.

이러한 육대연기로서 변화하는 상(相)을 통칭하여 하나의 실존만다라(實存曼荼羅)라고 하며 그것을 넷으로 나누어 사만(四曼)이라고 하고 법신불(法身佛)의 활동상(活動相) 즉, 삼밀(三密)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하 사만만다라 내용 중략)

이 사만을 법신대일여래(法身大日如來)의 상(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여래의 삼밀(三密)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찰에는 법당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모셔진다.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혹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고, 대적광전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을 모시며, 그밖에 극락전, 원통전, 미륵전, 약사전, 명부전 등에 불보살님을 모셔 그분들의 원력과 이상세계를 구현한다. 이렇게 볼 때 만다라는, 사찰에 있는 모든 법당을 모아놓은 셈이니 하나의 대가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나란다사에서 대소승과 밀교를 배워 중국에 순수밀교를 전한 선무의 스님과 금강지 스님을 통해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번역·소개되면서부터 밀교의 교리와 실천 체계, 그리고 만다라와 관정 등의 수행의례를 갖추게 되었다. 진리의 본질이자 최고의 것을 모두 갖췄기에 원만구족, 윤원구족이라 이르는 만다라를 선무의 스님은 '여래의 진실 공덕이 한 곳에 모인 것'이라고 했다. 만다라에는 대일여래를 비롯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등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등의 보살님, 그리고 팔부종과 명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모셔진다. 이는 대일여래의 지혜와 자비와 공덕에 공양 올리는 의미이고 그 보리심과 실천을 도와 중생교화에 다 같이 헌신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모든 존재가 곧 부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극히 예배드리는 대상이자 불보살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수행의 장이다. 만다라를 관상함으로써 불보살님의 덕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와 자비가 총망하여 중생을 돕고 이끌겠다고 발심하는 계기가 된다. 만다라는 제불보살님이 계시며 설법하는 곳이니 그 한 분 한 분의 공덕과 의미를 배운다면 자연스럽게 팔만사천 경전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다. 관상수행과 함께 밀교만의 특별한 의식이 관정 의식 때 행하는 투화득불이 아닌가 한다.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맹세하는 순간, 꽃을 던져 만나는 한 분의 불보살님을 나만의 스승으로 삼는다는 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분을 멘토로 삼아 수행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라보고 여쭙고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 가피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또 하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기는 건 만다라를 정성껏 조성한 다음 다시 허무는 전통일 것이다. 주로 모래로 많이 하는데 오색의 모래로 한 알 한 알 완성한 만다라는 그야말로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만다라를 다시 흩어 버리다니 아쉬움을 넘어 허무하기까지 하지만 무아와 공의 진리를 보여주고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이다. 그렇게 흐트러진 모래들은 강과 호수로 떠내려 보낸다. 모래에 깃든 공덕과 발원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다라를 조성하고 회향하는 모든 과정이 그대로 하나의 법문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넓어지는 원'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넓은 원을 그리며 나는 살아가네.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 넓어져 가네. 나는 아마도 마지막 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일에 내 온 존재를 바친다네.' 물론 그다음에는 신의 주위를 오랜 동안 돌고 있다는 글이 이어지지만 그림에도 마지막 구절인 '내가 매인가, 폭풍우인가, 아니면 위대한 노래인가?' 이 대목에 이르면 신을 향하든, 부처님을 향하든, 진리를 향하든, 바라보고 추구하는 모습 그 자체가 되어가는 삶의 여정을 떠올리게 된다.

선무의 스님은 만다라가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보문(普門)에 나아가게 한다'고 했다. 관상수행으로 불보살님과 같은 빛을 마음에 담고 투화득불로 불보살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러가는 만다라도 점점 크고 원만해지지 않을까?

BBS「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왕생법문

# 좋은 벗은 친하고 나쁜 이웃은 멀리하라

鳥之將息 必擇其林  
새가 쉴 때에는 숲을 가려서 내려앉듯이  
人之求學 乃選師友  
사람도 배우려면 그 스승을 잘 택해야 한다.  
擇林木即其止也安  
좋은 숲을 찾으면 편히 쉴 수 있고  
選師友即其學也高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학덕이 높아진다.  
故 丞事善友 如父母  
그러므로 좋은 벗은 부모처럼 섬기고  
遠離惡友 似冤家  
나쁜 이웃은 원수처럼 멀리해야 한다.  
鶴無鳥朋之計  
학은 까마귀 벗할 생각이 없는데  
朋豈鶴友之謀  
봉새인들 어찌 뱀새를 짝할 마음이 있겠는가.  
松裏之葛 直聳千尋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칠향굴은 천길이라도 올라가지만  
茅中之木 未免三尺  
잔디 속에 있는 나무는 석자를 면할 수 없다.  
無良小輩 頻頻脫  
어리석은 소인배는 그때마다 다 멀리하고  
得意高流 數數觀  
뜻이 크고 높은 사람은 항상 가까이하라.  
아운 선사 『자경문』 중

있는 친구나 스승이 거기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전 인생의 과정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무슨 일이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찬가를 부를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채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핍하면 헐뜯으려는 거짓 친구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요. 이웃의 불행을 마치 자기 자신의 행복의 척도로 삼으려는 그런 사이비 친구가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흔한가요. 이런 속성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독이요, 중생의 부끄러운 영역입니다. 거듭거듭 태어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떠나없이 먼저 이런 함정에서 헤어나야 합니다. 그 많은 불사와 법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중생의 어두운 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형성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밖에 어떤 공덕을 바라서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에 개선이 없다면 신앙은 무의미한 것, 그것은 한낱 타성에 젖은 습관이요 중독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없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가리켜 마약과도 같다고 합니다.

한국불교의 선각자인 고려의 목우자 보조선님은 처음 발심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글 첫머리를 이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처음 발심한 사람들은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 하라.”

친구의 영향이 어떤 것임을 경계한 가르침입니다.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웃이 짓듯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원하던 양건 간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먹을 가까이하면 그것이 튀어 검어지고, 나쁜 친구를 가까이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은 뒷보



다도 먼저 나쁜 벗을 멀리하고 그 대신 어질고 착한 사람과 가까이 사귀라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보면 '선우(善友)'라는 경구가 여러 번 나오입니다. 구도생활에 있어서도 그만큼 어질고 착한 친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응부 경전 45권에는 '반(半)'이란 법문이 실려 있다. 한문 번역으로는 잡아함경 27권에 '선지식(善知識)'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선우란 선지식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석가족이 살고 있는 어떤 마을에 부처님이 머물고 계실 때, 시자인 아난가가 부처님께 여쭙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곱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선량한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은 길의 반(半)에 이른 거나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착한 벗은 이 길의 전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우(善友)로 삼았기 때

문에 놓지 않으면 안 될 몸이어서 늙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죽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좋은 벗을 가지고, 착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 길의 전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이 길’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수행의 길이지만 보다 널리 풀이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행도 따지고 보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와 부모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여건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나 자녀들 사이에 신의와 존경과 사랑이 없다면 그 집안은 차디찬 의무만 남는 빈 껍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비록 가진 것은 적더라도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으로 다져진 가정이라면 늘 잔잔한 기쁨이 배어날 것입니다.

『숫타니파타』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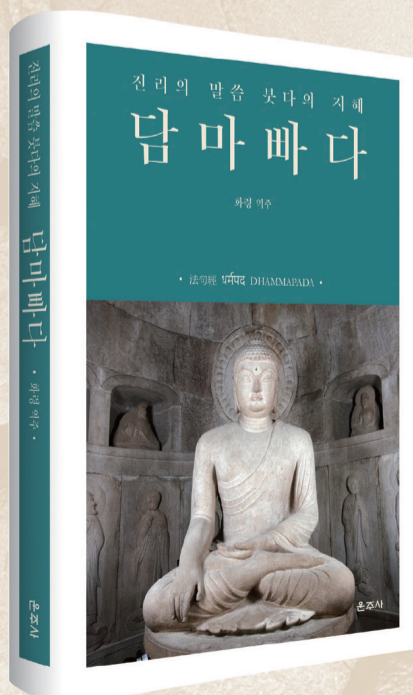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하셨습니다.

유유상종.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계꾼은 계꾼끼리, 도박꾼들은 도박꾼들끼리,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끼리, 말 없는 사람은 말 없는 사람끼리,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은 또한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끼리...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니까요.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법구경』

##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 담마빠다 法句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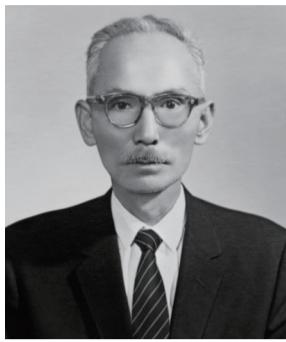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빠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 준제진언수행법을 찾아내는 순간 환희심에 차오르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0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진각종 총인이 된 후에도 대성사는 역경과 고리 확립, 밀교 의식의 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밀교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현실 속에서 정법을 구현되고 대승의 원력으로 개인과 세계를 구제할 근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의 진언, 하나의 의식, 하나의 경전 낱말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은 밀교의 가르침을 진실하고 틀림없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밀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책과 경을 구해오는 일도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기꺼이 맡았다. 밀교 교리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소의경전의 발굴도 이루어졌는데, 대일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반야심경 등이 추가되었다. 경전을 근거로 밀교 수행을 정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수행과 교리를 모두 부처님 법에 맞게 갖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다른 이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교도들과 스승들도 밀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이들이 많지 않았다. 수행으로 밀법의 오묘함을 체득한 이들은 있었지만 경전을 해박하게 이해하는 노력은 수행에 대한 열의만큼 깊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

1965년 6월 22일 전국적인 반대 속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됐다. 그에 따라 한국과 일본 문화교류의 물꼬를 불교계에서 텄는데, 1968년 해인사에서 열린 한일불교도대회는 대성사의 종교

이력에 큰 전환점이 된다. 대회에 참석한 일본불교 대표들은 밀교를 표방한 신흥종단 진각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교 종단들에 비해 수행과 외형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불교 대표단은 심인당을 방문해 본당을 둘러보고 대성사에게 이런 의문을 남겼다. “진각종은 대일여래를 교주로 모시면서 진언은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으로 하는 것은 수긍할 면이 있다. 하지만 대일여래의 지권인을 수인으로 수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신밀과 구밀의 수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밀교의 근본 수행법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근거로 어떤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삼는가를 물었으나 당시에는 딱히 답할 내용이 없었다. 교리 체계가 미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족함이었기 때문이다. 정통 밀교와 유사 밀교를 가늠 짓는 잣대는 분명했다. 대성사는 이미 확신이 차 있었다. 그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일여래(大日如來)를 교주(教主)로 하지 않거나 대일여래를 교주로 하더라도 삼밀을 경계(經軌)대로 하지 않고 관법(觀法)과 사종수법(四種修法)이 결여되면 그것을 유사밀교(類似密敎)라 한다. 밀교의 삼밀은 본존(本尊)과 그 본존의 진언(眞言)과 그 본존의 결인(結印)이 합치되어야 완전한 삼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합치되지 않고 본존과 진언과 인상(印相)이 각각 다른 불보살의 것을 종합하여 삼밀관행(三密觀行)을 하는 것은 이것이 유사밀교(類似密敎)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계에 어긋나고 삼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까닭이다.”

정통 밀교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대성사의 심중에 무겁게 남았다. 납득하지 못할 일을 지나쳐 넘기지 못하는 성품이라 경전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다. 밀법에 대한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경전 전체를 살폈다. 당시 연구 환경은 지금과 같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만 대장경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려대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 삽화 중

장경과 신수대장경 전체를 뒤지고 연관되는 내용을 찾으면 공책에 옮겨 적어 일일이 필사하거나 사진 촬영을 해서 사본을 만들었다. 그것을 일일이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어려운 작업을 홀로 해야 했다. 종단에는 그럴 인력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뼈저린 노력으로 대성사가 찾아낸 것이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이니 밀교의 뿌리와 관자재보살의 인연을 밝힌 것이다.

“석가모니불 이전 과거불인 시기불 때 관자재보살이 이미 보왕경을 설하고 또 비사부불 때는 부처님이 인욕선인(忍辱仙人)으로 계실 때 관자재보살로부터 보왕경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밀교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무수한 겁의 시간이 지나 부처님이 입멸한 후 800년대에 남전축 철탑 속에서 십만 송의 밀교 경계가 출현하여 대일여래(大日如來),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 금강지(金剛智), 선무외(善無畏) 등에 의하여 해과(惠果)에게 전하고, 해과로부터 신라에서 혜일(惠日)과 불가사의(不可思議)가 그 법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공해(空海)가 법을 받았으나, 공해보다 혜일이 먼저 법을 받았으니 법형(法兄)이 되는 것이다.”

당시 밀교 경전 대부분을 살피며 대성사는 밀교의 근본과 수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 신라 이후 흩어진 밀교의 맥

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자신의 할 일이란 점은 분명했다. 끊어진 길을 다시 이어가려면 난관이 있고 당장은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았다. 진각종과 맺은 인연을 마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을 찾아 육자진언의 연유를 밝힌 후 대성사가 몸입한 것은 밀교 신행체계의 확립이다. 남의 이해를 구하기 전에 자신부터 납득할 수 있어야 했기에 치열한 탐구와 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경에서 설해지는 “관자재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시작한 것은 무량겁 전, 비바시불 때부터이다.”는 구절을 통해 관자재보살이 경전상 모든 관음의 원초이며 근본이라는 것은 명백해졌다. 관세음보살이 인간세계를 교화하기 위해 현신하는 분이 준제관음보살이며, 준제는 청정을 뜻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수행을 위해서는 준제관음진언인 ‘나무 사다남 삼막삼따 구치남 단야타 음 차례 주레 준제 사바하’를 염송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것이 소위 준제관음법인데, 이는 현대 한국밀교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준제진언은 모든 진언을 두루 통하고 있으므로 진언 중에 진언으로 바다와 같은 진언이며, 불모다라나라 하는 연유이다. 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에는 준제진언이 “일체 재앙을 소멸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신속히 성취하도록 하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한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업의 과보 속에서도 누구나 받아 외울 수 있으니 중생을 위한 진언이고, 여의주와 같으니 모든 진언을 염송할 수 없다면 준제진언만이라도 염하라는 것이 예부터 전하는 가르침이었다. 진언의 위력뿐 아니라 깊이 있는 염송은 주변을 청정하게 하고 진언자를 청정하게 하며 어떤 장애도 넘겨 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래되는 내용이다. 대성사는 준제진언의 수행법을 찾아낸 순간 한편 환희심을 얻었고 한편 앞날의 장애를 알 수 있었다. 진실과 진리는 모두를 위한 일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는 법이다.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 득락전 조성, 증원사 건립 등 종단발전, 교화혁신의 길로

##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 01. 정통밀교종단의 가치 확립

#### 증장기 발전 방안 모색

종단은 창종 30주년을 앞두고 증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1999년 승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종단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승직자의 문제의식을 종합하고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졌다.

종단 사원은 대부분 대도시 및 중소도시(84%)에 위치해 있고 그 중에서도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58%), 상업지역(18%)에 자리하고 있어 교화를 위한 입지적 조건은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법프로그램은 불공(64%)과 재공양(13%)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전법프로그램이 미미하며, 종무원이 없는 사원(74%), 지역 내 주요 인사와 교류가 전혀 없는 사원(71%) 등에서 전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과 사원의 행정업무 협조에서는 주요 사안만 선별 협조(13%), 각종 불사로 중앙업무에 소극적(11%)이어서 종단 내 네트워크와 통일성이 부족할 실정이다.

전법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는 중앙의 지원 부족(29%), 개인역량 부족(17%), 지역의 비불교적 영향(20%), 다양한 프로그램 미비(23%) 등이 제기됐다. 새로운 홍보물이 시급(81%)한 가운데 종보를 적극 이용(7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새로운 홍보매체의 제작과 보급에도 나서야 한다. 특히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도(0%)에서 스승들의 정보화 대응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전법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법요집 및 교재의 형식과 내용 부적절(87%), 설법 주제와 문안의 정기적인 제공 필요(97%),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전법 홍보물 개발 보급(35%), 새로운 전법 프로그램과 홍보 필요(80%), 전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전법행사 필요(79%)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원을 주민과 직장인을 위한 참선 및 관법 수행처(30%), 한국불교 밀교성지 등 유적답사(18%), 전통혼례와 소규모 집회 등 장소 제공(14%), 다실(12%), 인사 초청 강연(10%) 등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89%)이었다. 이밖에 전법 프로그램 개선사항으로서 재 불사의 통일, 불공시간의 조정, 학생회 등 계층별 범회 분리와 차별화, 사원 신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종단발전을 총괄 기획하고 추진할 특별기획단 설치에 공감(88%)을 표해 향후 '총기 30년 특별기획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지역 조사와 현장 분석을 통해 증장기적인 대안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총지종보 14호, 새로운 세기, 총기 30주년 특집 '종단 발전을 위한 승직자 설문조사(1999년 5월 20일)' 분석 기사 요약>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001년 3월 13일 강공회에서 승직자 전원이 모인 가운데 교화활성화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교화 부진의 원인과 대책, 교화 방편과 수행 방편의 개선 방안, 사원 및 신정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이에 종단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2의 본산 건립계획을

재수립하여 기도 및 집중수행 도량으로 일신하고, 중앙신정회 창립으로 교도조직 활성화를 꾀했다. 종단 지표에 부응하는 가사와 법의 및 만다라 봉안을 준비했다. 다음 해 11월 13일 창종 30주년을 기해 종단 발전 및 교화 혁신을 위한 승단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교화 일선에서 느꼈던 세세한 문제부터 종단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제2의 본산부지 매입을 비롯하여 불단 장엄, 불사의식 정비, 교화방법 혁신, 스승과 종무원 교육 강화, 전당 신축, 불보살상 봉안, 각종 제도와 법령 개혁, 원만한 인사이동, 사회복지 등 총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이때 표출된 변화와 혁신을 향한 갈망은 종단 발전과 교화 혁신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졌다. 전당건설위원회(위원장 우송 정사)는 신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원 건축의 미래형 표준모델을 연구하고 종조전 건립을 준비했으며, 교화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범정 정사)는 교화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신규스승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신개척지 사원 개설 방안을 연구했다. 불사법요위원회(위원장 해암 정사)는 불사법요집 증보판 추진과 각종 불사식순의 법문 내용을 확충하고 49재 의식을 집중 연구했으며, 종헌종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의강 정사)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 개정 내용을 도출했다.

홍법포교위원회(위원장 지공 정사)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종단 소개용 소책자, 휴대용 불사법요 소책자, 종립학교용 교리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정법계 전수)는 구 국광사 부지를 활용한 수도원 건설 추진방안을 비롯해 복지재단의 발전방안과 납골당, 양로원 등의 시설 준비방안을 연구했다. 도제양성위원회(위원장 정인화 전수)는 신규 스승과 종무원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도제양성 관련 법규를 개선하며 인재양성 기금 조성방안을 모색했다. 재정자립위원회(위원장 시정 정사)는 본산을 포함하여 전국 사원의 상가



1995년 8월 4일 들불처럼 일어난 종단 교화 역사의 산증인, 부산 정각사 본당 건립 기공불사.



1996년 6월 19일 총지불교대학이 문을 열고, 제1기 기초교리과정을 개강했다.

임대 적절성을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적립되어 있는 본산건설비의 활용방안을 연구했으며, 총괄기획위원회(위원장 지성 정사)는 본산 건립 관련 계획을 재조정하고 각 위원회의 연구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승직자가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장과 고문, 위원과 간사를 맡아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분과위원회의 연구 활동은 3년에 걸쳐 이어졌고 이를 기초로 보다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25일 종단발전을 위한 특별기획단을 상설화했다. 우송 총리원장을 기획단장으로 하고 종의회의장,

법장원장, 사감원장, 중앙교육원장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했다.

불사법요개정위원회(위원장 범공 정사), 종헌종법개정위원회(위원장 지성 정사),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원송 정사), 교육포교홍보위원회(위원장 화령 정사)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의 입안 내용을 지도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위원회인 통리원과 의원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사업을 구체화했다. 종단발전과 교화혁신을 위한 각종 분과위원회와 특별기획단의 연구를 통해 집약된 사업 방안은 득락전 조성을 비롯하여 증원사 건립, 국제제가불교지도자대회, 총지불교대학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 총지사 교도 광고

###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 연세숲내과

## Yonsei Forest Clinic

### 원장 김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 선밀쌍수 『밀교집』(2)



밀교집

태종은 1406(태종6년) 불교종단을 혁파하여 종단을 축소, 통제하였다. 『태종실록』에는 조계종, 총지종을 합하여 70사를 남기고, 중도종과 신인종은 합하여 30사를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1784년(정조 8) 『밀교집』을 간행하였고, 무안 총지사가 1810년까지 존속 했으니 조선시대 밀교의 범통을 지킨 세월이 400여 년이나 되었다. 환우(喚叟)가 남긴 『밀교집』의 서문은 신라시대 불가사의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 이후 밀교 경론에 대한 주석이 멸실된 현실에서 조선 조 밀교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라 아니할 수 없다. 환의의 <서>에는 밀교가 유포된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전하는데, 서문에 대해 <개간비밀교서>라 이름한 것은 밀교 진언의 유통에 대해 오류와 산실도니 부분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사마다 지혜 있고 밝은 이들이 있어 때때로 유포하였으나 다만 범본은 확실히 전하지만 여러 손을 거치면서 본래의 뜻이 망실된 경우가 많아 아는 이들이 볼 때 개탄할 지경에 이른 지 오래였다. 서산의 후인인 농산화상(農山和尚)은 호서(湖西)로부터 영남에 이른 분인데 오래도록 범서의 신묘한 영험을 공부하여 깊은 이치에 대해 깨달음이 있었고, 필법도 범속함을 넘었다. 화상의 보살계를 받은 제자 몽은(夢隱)이 자 도반은

화상에게 범본을 손수 써서 간행하여 유포하길 바랐다. 바른 후학의 안목으로 여러 차례 화상에 청하였으나 화상은 거절하길, “범서의 진언은 우리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것이며 관음의 영험한 자취이다. 나는 범부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현성의 영험한 경지를 얻었겠는가? 후인이 내가 필사한 책을 보면 지금 사람이 과거 필사한 책을 보는 것과 같아 개탄할 지경일 것이니, 나의 도반으로 하여금 후대에 웃음거리가 되게 할 뿐이다. 스님들이나 법에 어떤 이익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완강하였다. 그런데 몽은은 이 불사에 평소 나서는 않지만 이 일을 두고는 스스로 말하 권선문을 꾸리고 남쪽으로 뛰면서 시주자를 모집하였다”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밀교집』 발간에 있어 설악(雪嶽)·연과(戀坡)·몽은스님의 주도로 농산화상을 설득해 시작하게 된 불사의 연기를 밝히는 것이다. 호서 지역이면 과거 충청남북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중후기까지 범서, 즉 실담을 쓸 수 있는 스님들이 있었고, 오자를 판단할 스님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밀교집』의 또 다른 <서>는 스스로 늙은이[老叟]라 칭한 산포(山浦)의 글인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일찍이 금강산 유점사에 있을 때 범서 패엽경 두 편을 본 적이 있다. 자취가 날아 살아 움직이고 필법이 신

묘하였으니 보통 사람의 글이 아니었기에 옆에 두고 아낀만한 것이었지만 스스로 뜻을 알 수 없었다. 절의 승려가 이르길 이것은 관세음보살 수행의 궤로 절의 보물이다. 나는 듣고 기이하게 여겨 감탄하였다. 그 후 나는 산맥 넘어 유람하다가 농산대사께서 광양과 가야 사이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대사는 때때로 범자를 쓰셨는데 그 마음의 글과 통달한 수법의 경지는 가는 곳마다 신묘하여 관세음보살의 그림자가 늘 따른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산포는 후손에 전하길 청하였으나 [傳之爲佛家之用] 대사는 겸양하여 즐거이 듣지 않았고, 헛된 명예를 멀리한 대사의 풍도와 거둬 청해 후손에게 남겨진 과정이 <서>에 기록되어 있다. <서>에는, “오호라 이제야 나는 대사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불이 문에 드는 이들이 곧바로 연화법장에 이르러 관세음보살의 풍도를 좇아 대자비와 대법력으로 사계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니 범서를 전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불이 문에 들자 곧바로 연화법장에 이르러”는 말은 곧 즉신성불로 선가의 단박에 얻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선밀쌍수의 풍도가 어찌 아니겠는가?

『밀교집』에는 범자실담과 한글 어문의 대조표와 금강계만다라에 입각해 제존과 감자의 관계를 병기하거나 태장계만다라와 팔괘를 만다라로 그려낸 내용을 볼 수 있다. 『밀교집』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밀교적으로 수용한 한국밀교의 독자적 해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글 세계화 시대에 한글과 실담의 심오한 이치를 밝힌 것이어서 후학들의 더 나아가는 향후 연구를 기대하게 한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 해금, 중도를 말하다

불교에서 중도를 설명할 때 소나 비구의 이야기 많이 인용한다. 소나 비구는 라자가하에서 부처님의 계승을 듣고 출가한 부유한 장자의 아들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했지만 수행의 결과가 좀처럼 체득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속세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자질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 소나 비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보시로 공덕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때 소나 비구의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다.

“소나폴리위사,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 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예, 부처님.”  
“그대가 악기를 연주할 때 현을 너무 팽팽히 조이면 소리가 듣기 좋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지나치게 느슨하면 듣기 좋던가?”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 악기를 연주할 때 현의 완급을 적당히 조율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욕이 지나쳐 너무 급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하려는 뜻이 없으면 태만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생각지 말고 항상 가운데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속세의 미혹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예전부터 꼭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었다. 바로 해금이다. 어릴 때 고전 사극에서 들려오던 해금 소리가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해금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꼭 배워보고 싶었다. 때마침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해금 강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개월간 해금을 배운적이 있었다.

해금은 작은 울림통에 세로로 대를 세우고 울림통과 대사

이에 두 개의 줄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오른손은 활대로 줄을 마찰시키고, 왼손은 두 줄을 한꺼번에 감아 잡고 손가락을 쥐거나 떼면서 소리를 조절한다.

해금은 다른 악기들처럼 음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소리를 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해금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뛰어난 음감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현과 활의 마찰에서 얻어지는 음들을 정교하고 조화롭게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연주자의 손에 맡겨진 해금에서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이 깃든 소리가 발하려면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은 해금을 연주하는 사람의 몫이다. 영혼을 울리는 해금 소리는 연주자의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중도의 이치 또한 적당한 줄의 조절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흥미가 있어야 하며 그 악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짧고 간단한 연습곡과 배우기 쉬운 동요로부터 시작해서 해금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설정한 여러 다양한 곡을 난이도에 따라 배열하여 고급단계까지 나아가는 연주자의 절차탁마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음	마	니	반	매	흠	참	교	육
니			야		불	선		합
버	효	심		트	집			상
스	시		경	청		중	심	지
	나			결		포		
이	브	닝				화	장	품
	로		요		밀		학	
공		궁	리		짚		금	수
휴			조	삼	모	사		수
일	품	요	리		자		막	바
								지

## 한국밀교학회

# 인도네시아 불적답사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

한국밀교학회는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사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보루부드루 불교사원과 뿌란바난 힌두사원, 문 듯 불교사원과 세우 사원, 로미오와 줄리엣 사원, 플라오산 사원 등을 답사합니다. 보루부드루 사원은 장대한 불탑으로 세계 3대 불교사원 가운데 한 곳이며 뿌란바난 힌두사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술탄왕궁 물의 궁전 관람, 이조 사원 석양 감상, 그레자 아얌(닭 교회) 전당대 관람, 머라피 화산 투어, 라마야나 전통공연 관람 등이 있습니다. 뜻있는 스승님과 금강회 임원 및 신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8월 16일(금)부터 8월 21일(수)까지(4박 6일)  
**경비** | 240만원 (농협 024-17-001883 한국밀교학회)  
**신청** | 한국밀교학회 총무이사 명운(김치온) 전화: 010-5322-2746

● 보루부드루 불교사원



# 종립 동해중학교 2024학년도 입학식 거행

## 3월 4일, 7개 학급 신입생 189명 입학



“저희 신입생 189명은 오늘부터 자랑스런 동해중학교 학생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종락) 빛나는 전통을 만들 수 있는 성실하고 참된 학생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 동해중학교 2024학년도 제57회 입학식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30분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선생님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7개 학급 189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학교장의 입학허가 선언에 이어 신입생들의 우렁찬 입학 선서, 교직원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우인 정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학교의 교화는 연꽃입니다. 연꽃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마음마다 연꽃 씨 하나씩 뿌리고, 그 꽃을 활짝 피우는 학창 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고 ‘처연상정’의 뜻을 전했다.

송인근 교장은 “신입생들의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열심히 달리며 우정을 쌓고 건강하게 커 나가자.”고 환영했다. 이어 참석 학부모에게도 “학교를 신뢰하고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학교와 함께 소통하고 해결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중학교는 2024학년도 총학생회를 구성했다. 지난 3월 14일 후보자 정견 발표에 이어 15일 선거를 실시하여, 총학생회장에 3학년 장수빈 학생을 선출했다. 또 1학년 이유철, 2학년 장세현, 3학년 윤빛나 오 학생을 학년 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 추구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궁극 목적은 ‘행복(幸福)’의 추구(追求)에 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의 책무와 일에 온갖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가? 라고 되물어 보자.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넉넉하게’라고 하면서 인간은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람들은 왜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만 하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과제이다.

히말라야 고원이나 네발 등지의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난하게 살면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진 것은 결코 풍족하지 못했음에도 이웃과 서로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배려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아닌가?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눈빛이 맑고 청아하고, 생활은 늘 활기차며, 육체는 늘 건강하게 살고 있다.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동경한다는 점에서는 그들이나 우리가 삶의 추구에서 다름이 없지만, 그들과 우리는 사고의 차이가 다르다. 그들은 오직 생존 그 자체가 삶의 문제이고, 우리는 각자 자신들의 지나친 이기심으로 허욕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풍요 속의 빈곤, 이 낡은 명제를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우리는 각양각색의 많은 문제를 신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고, 흔들리는 교육 문제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인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양 각색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개혁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과 건전한 정신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인식과 행동의 실천에도 정서를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진실로 걱정해야 할 일은 경제 수치보다는 날로 황폐해져 가는 인간성 문제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금전의 문제

가 아니라 가치관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인면수심 하는 인간성 상실의 사람들, 반목과 질시로 오직 분열과 파괴를 획책하는 사람들, 투쟁과 약탈의 비이성적 인간들, 바로 이런 부류를 우리가 걱정하고 풀어야 하는 숙제이며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수수께끼이다. 모자라고 아쉬운 것을 채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모자라도 넉넉하게 즐길 줄 아는 처세관을 배워야 한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찌들지 않은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생활, 그것이 우리 선인들이 누렸던 안빈낙도의 처세관이다. 맑은 가난은 넘치는 풍요보다 훨씬 가치 있고 값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부자도 가난도, 사랑도 미움도,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버리고 소탈한 마음으로 버리고 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행복의 문제는 소유와 밀착되어 있다기보다는 마음과 밀착된다. 우리는 지난 시절보다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살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행복해할 줄 모르고 살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일은 이런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 마음을 되살리는 것은 분명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자주 새 출발이라는 준비와 함께 반성이라는 짐을 신고 달려야 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또 어떤 가치가 있으며,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또 묻으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새봄이다. 그저 만들어지는 봄의 따사로운은 단 하나도 없고,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희망이라는 대지에 피어오르는 화창한 봄꽃들처럼, 반성이라는 마음의 토양에 행복이라는 새 꽃을 피워 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성달

## 마니합창단, 광주서 음성공양

### 3월 27일, ‘2024 전국불교합창제’ 참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3월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4 전국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전법을 울리다’란 주제로 진행된 합창제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0개 지역 연합 합창단 1,000여 명이 다채로운 음성공양을 올렸다. 종단 마니합창단(단장: 최해선)은 서울경기남부합창단연합회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부처님을 찬탄하고 관객들에게 환희심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에는 마니합창단 김옥인, 김은미, 김현숙, 백귀임, 양유덕, 임은하, 전추면 단원이 무대에 올랐다. 또 인선 정사(법황사 주교)와 정계월 전수가 참석해 단원들을 격려했으며,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 안미옥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다.

## 2024년도 봉축 표어 선정

###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불기 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 선정됐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이같이 봉축표어를 선정해 지난 3월 15일 발표했다. 봉축위원회는 매년 선정하는 봉축표어는 봉축 기본 표어인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공동으로 사용되며, 당해 연도의 사회 상황과 염원 등을 담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불자와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정진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봉축위는 봉축 표어를 담은 포스터와 현수막 디자인을 전국의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종단 각 사원은 통리원에 요청하면 된다.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2월 21일 ~ 3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2/21	10,000	동해사	송인근	3/20	10,000	수인사	법상	3/18	20,000	정각사	안한수	3/3	10,000					
	김병석	2/26	10,000		강명순	3/4	10,000		이순영	3/10	20,000		탁성달	3/10	10,000					
	보명심	3/18	10,000		이중구	3/11	7,000		혜광	3/10	10,000		노정호	3/12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2/21		20,000	만보사	홍도열		3/14	30,000	실보사		박선호	3/4	10,000	제석사	이진승	2/29	10,000	
		수중원	2/21		10,000		김정희		3/19	10,000			이순옥	3/4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3/4	80,000
		밀공정	2/21		10,000		밀인사		덕광	3/11			20,000	실지사	정우석			2/26	20,000	총지사
	선도원	2/21	10,000		밀행사	이은별	3/18		100,000	황성녀	2/28		10,000		신현태	3/10		10,000		
	법지원	2/21	10,000		법천사	행원심	3/18		10,000	유승우	3/14		10,000		백귀임	3/11	10,000			
	일성혜	2/21	10,000		법황사	반야심	2/29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이도현		3/14	10,000	총지사	최영아	3/11	10,000		
	사홍화	2/21	10,000			인선	2/21		10,000		이서현		3/14	10,000		유은혁	3/13	10,000		
안주화	2/21	10,000	법황사	정계월		2/21	10,000	이루나	3/14		10,000	김정환	3/17	10,000						
진일심	2/21	10,000	벽룡사	박미경	2/26	10,000	양지 제1복지관	진금선	3/1	80,000	화음사	강동화	2/28	10,000						
시각화	2/21	10,000		승원	2/21	10,000		서영주	2/27	10,000		송영근	2/28	30,000						
최상관	2/21	10,000		묘원화	2/21	10,000		박승희	3/4	10,000		박대영	3/1	10,000						
연등원	2/21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3/3	80,000	윤천사	반야화	3/7	30,000	화음사	박대성	3/3	10,000						
자선화	2/21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2/26	10,000	한재희	2/26	80,000		원당	3/11	10,000						
승효제	2/21	10,000			김민준	3/13	10,000	연명규	2/28	10,000		묘심해	3/11	10,000						
주신제	2/21	10,000	박필남		3/15	10,000	도우	3/11	10,000	박옥자	3/18	10,000								
총지화	2/21	10,000	삼일사	묘홍	2/25	10,000	자석사	지현	3/11	1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3/11	80,000						
단음사	진여	2/26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2/22	5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2/26	80,000						
단향사	지홍	3/17		10,000		박헌정		2/26	20,000			정각사	노정호	2/26	10,000					
덕화사	법상인	3/18	20,000	정윤영		2/26	10,000	김점남	2/27		20,000		*포항 대령리 후원금	관성사	우인	3/23	100,000			
	송인근	2/20	10,000	오선혜	3/4	10,000														
동해사	법선	2/21	10,000																	
	김진화	3/4	1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22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범망경(梵網經)』의 불살생에 대하여

『범망경』은 대승보살이 받아 지니는 10가지 중요한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를 실한 경전으로 보살계라고 하는 계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 보살계의 10중 48경계 가운데 첫 번째는 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살생이다.

중생을 죽이지 말라

불자들이, 너희는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어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因)이나 죽이는 연(緣)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고의로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에 머물러 일체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호해야 하니,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생각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波羅夷) 죄가 되느니라.

佛言：佛子！若自殺，人殺，方便讚歎殺，見作隨喜乃至呪殺。殺因，殺緣，殺法，殺業，乃至一切有命者不得殺。是菩薩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方便救護一切衆生，而自恣心快意殺生者，是菩薩波羅夷罪。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중생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범망경』에서는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살생에 대해서도 바라이죄가 된다고 하셨다. 이어서 48경계 가운데 세 번째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이 있다.

고기를 먹지 말라

불자들이, 일부터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니, 어떠한 중생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기므로 중생들이 보고서 버리고 도망가니, 그러므로 일체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느니라. 어떠한 중생의 고기라도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며, 일부러 먹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若佛子！故食肉。一切肉不得食，斷大慈悲性種子，一切衆生見而捨去，是故一切菩薩不得食一切衆生肉，食肉得無量罪。若故食者，犯輕垢罪。

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 까닭은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왜 그럴까? 만일 닭이나 돼지나 소를 볼 때 그것을 먹을 것으로 보는 사람과 나와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 사람의 자비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된다. 우리는 고기를 먹기 위해 그것도 값싸게 많이 먹기 위해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 동물에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있다.

올해 1월 9일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동물은 먹어도 되고 개만 안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왜 같은 동물인데 개고기에만 식용금지법이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동물복지운동계의 오랜 요구도 있었지만 근자에 반려동물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 한다. 그만큼 개나 고양이를 가족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의 개식용은 복날에 먹는 보신탄 문화가 있어왔기에 한 때는 전통문화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불교설화를 비롯하여 구전 설화에 의하면 전생에 부모가 그 집 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예로부터 개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로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불교환경연대에서는 복날 육계장 대신 채계장을 먹는 캠페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복날 채식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그렇다면 개식용금지법만 개고기를 안 먹는 문제로 끝날 일인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요즘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듯이 개를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감정을 나누는 존재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닭이나 소나 돼지도 그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이 좁은 철창에 갇혀서 오직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지금의 축산문화를 개선하고 차츰 육류소비를 줄여가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자야, 보리살타의 체성의 화광지(華光地)는 능히 일체 세계 중에서 십신통명지(十神通明智)의 품류를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며, 천안명지(天眼明智)로 3세의 국토 가운데 티끌같이 많은 일체의 색이 어지러이 6도 중생의 몸을 이룸을 알며, 하나하나의 몸에 티끌과 같이 작은 미세한 색이 큰 색을 이루는 것을 분명하게 아느니라.

若佛子！菩提薩 體性華光地，能於一切世界中，十神通明智，以示一切衆生種種變化。以天眼明智，知三世國土中微塵等一切色，分分成六道衆生身，一一身微塵細色成大色分分知。

『범망경』에서는 보살은 지옥에서부터 천상에 이르는 육도 중생의 몸이 티끌같이 많은 일체의 색이 어지러이 몸을 이룸을 알고 하나하나의 몸에 티끌과 같이 작은 미세한 색이 큰 색을 이루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고 하였다. 티끌같이 작은 미세한 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요즘 말로하면 세포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작은 단세포 생명체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를 기본단위로 하여 수많은 세포들이 결합하여 몸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일체중생의 몸을 색으로 분명하게 관찰함으로써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고 인간을 포함하여 일체중생에 대해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낼 수 있다.

태고종 제21세 종정 운경 대종사 추대

3월 30일 백련사에서 “불교인 다시 깨어나야”



한국불교태고종 제21세 종정에 운경 대종사가 추대됐다. 태고종은 3월 30일 서울 백련사에서 ‘제21세 종정 운경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1부 다례식에 이어 2부 추대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추대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태고종 주요 스님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대표, 정관계 대표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해 운경 대종사의 종정 취임을 축하하고 태고종의 발전을 축원했다.

운경 대종사는 취임법어에서 “원효의 화쟁정신, 태고보우의 원유무애 사상, 만해의 <불교

유신론>과 같이 우리 불교인도 다시 한 번 깨어나야 한다.”고 사자후를 썼다.

종정 운경 대종사는 1960년 서울 백련사에서 설호 스님을 은사로, 금봉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백련사 강원 사미과 및 사교과를 수료하고 법륜사와 선암사에서 대교과를 졸업했다. 1975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 및 구족계를 수지한 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백련사 상임법사, 총무원 총무위원, 태고종 보건공제회 전무이사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1996년 백련사 주지 취임한 후 2002년 태고종 종관수호위원회 위원을 끝으로 종단 소임에서 물러나 수행과 전법,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

통리원장 우인 정사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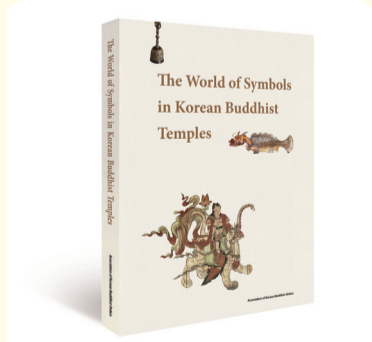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집행부는 지난 3월 8일 오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용종 총무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진호 스님은 “지난 2월 말부터 사무총장 소임을 시작해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며 “회원종단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종단협을 통해 한국불교가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하는데 같이 힘을 모으고 노력하는데 앞서달라.”고 화답했다. 사진 왼쪽부터 원용종 명진 스님, 총무부장 록경 정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사무총장 진호 스님, 서강 정사, 종단협 양정술 차장



<The World of Symbols in Korean Buddhist Temples> 한국불교 소개 외국어 책자 발간



판형 사륙배판 188mm×250mm  
두께 15mm, 220쪽  
발행일 2024년 3월 11일  
발행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이하 종단협)가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외국어 책자 <The World of Symbols in Korean Buddhist Temples>를 최근 발간했다. 한역으로는 ‘한국 사찰의 상징세계’로 해석된다.

종단협은 2008년 <한국불교> 중문·일문판을 시작으로 한국불교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단행본을 기획 및 제작하여 발간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17번째다.

원고는 자현 스님의 책 <사찰의 상징세계>를 기반으로, 외국인들이 사찰을 방문하고 머물면서 궁금해하던 내용을 불교 우주론부

터 사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연꽃·모란·물고기 형상 상징문양까지 세분화된 주제로 구성했다.

쉽게 묻지도 답하지도 못한 키워드를 내용으로 선별해 교리적·역사적·문화적 연원을 밝히고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이전 불교가 거쳐 온 많은 지역의 풍습과 의례, 이웃 종교와의 교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총 2천 권이 비매품으로 제작됐으며 통리원 홍보실에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 주한 대사관·해외 대사관·해외한국문화원·해외도서관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석관실버센터 방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여가 문화 공간으로 '화제'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 3월 20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의 한 코너인 '찾아라! 오픈런'에 서울시 성북구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여가 문화 공간으로 소개돼 큰 화제가

됐다. 이날 방영된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석관실버복지센터만의 노하우가 담긴 학습, 건강, 취미 프로그램과 치매 예방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두뇌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홈스쿨링 교재 '두뇌건강학습지' 배부 현장 등을 생생히 소개했다. 아

리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전문 봉사단 '석관지니어스봉사단' 등의 활동도 다양하게 보여줬다.

특히, 매주 월요일 석관실버복지센터 특화사업으로 운영 중인 두뇌건강증진센터는 '두뇌건강학습지'를 수령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오픈런 장소로 소개했다. '두뇌건강학습지'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남력, 시지각, 기억력, 계산능력 등 다양한 콘텐츠로 특별한 재미를 더하며 제작한 홈스쿨링 교재로 두뇌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이날 학습지는 1시간 만에 총 150부가 소진되었으

며, 참여할 수 있는 자율 이용 프로그램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이 공개되며 많은 이목을 끌었다. 수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노래를 통해 활력이 생겨 에너지를 얻고 웃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센터는 해당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령에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

나석원 센터장은 "지역사회 문화 예술 향상에 기여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여가선용과 잠재 능력을 펼치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		㉡		②	㉢
		③		⑥	㉣	
④	㉤		⑤	㉥	⑦	
⑧					⑨	㉦
			㉧	㉨		
㉩		⑩			⑪	㉪
			⑫			
⑬					⑭	

### 가로 열쇠

- ① 증생 구제와 재난 소멸, 소원 성취의 공덕이 깃든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 ②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 ③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
- ④ 법에 식초, 설탕, 소금 등을 넣고, 김, 생선, 유부 따위를 올려 만드는 일본 요리
- ⑤ 남의 말을 귀기울여 주의깊게 들음
- ⑥ 공연히 남의 조그만 흠집을 들추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림
- ⑦ 어떠한 일이나 활동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장소
- ⑧ 아침엔 굿 모닝(Good morning), 밤에는 굿 000!
- ⑨ 화장하는 데 쓰는 크림, 분, 향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⑩ 일을 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 ⑪ 태어나 보니 부모가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음
- ⑫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씀
- ⑬ 맛이 좋기로 첫째가는 요리 또는 한 그릇에 조화 있게 담은 한끼의 식사를 일컬음
- ⑭ 일의 마지막 단계

### 세로 열쇠

- ㉠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영화나 연극의 한 형식
- ㉡ 총 262자로 대승 불교 반야 사상의 핵심을 담은 짧은 경전
- ㉢ 독일의 지리학자, 자연과학자, 박물학자, 탐험가. 책 <우주 Kosmos> 저술
- ㉣ 선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깨달음을 위해 자기의 본래면목을 탐구하는 불교수행법
- ㉤ 총지종 교역의 상징이자 종지를 표시하는 종단 대표 상징문양
-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 ㉦ 깨끗하고 말끔함
- ㉧ 어떤 한 목표에 집중적으로 대포를 쏘는 일
- ㉨ 국경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진 휴일
- ㉩ 일정한 방향이 없이 요쪽으로 조쪽으로
- ㉪ 밀집이나 보릿집으로 걸어서 만든, 땀뻑하고 윗부분이 납작한 여름 모자
- ㉫ 배움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
- ㉬ 강이나 골짜기의 물을 막거나 또는 수로 등으로 물을 끌어들이어 만든 인공 못

## 포항 수인사, 자비의 도시락 나눔

### 중앙동 1인 가구 어르신께 건강 배달

자비의 도시락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자리아타행을 실천하고 있는 포항 수인사(주교:법상 정사)가 3월 24일 자성일을 맞아 중앙동 이승현 동장이 동참한 가운데 봉사 모임 수인회와 함께 직접 만든 도시락 50개와 떡을 준비해 관내 1인 가구 어르신을 일일이 방문하여 따뜻한 한끼를 나눴다.



## 수인사 자비의 나눔 도시락 후원

수협 2010-0891-3775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수인사급식)

##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대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옴홍야호사'로써 국민안만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허구3리 대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경3길 20-1 (구경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담갑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말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회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향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 2024년 한국밀교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시 6월 13일(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30분  
장소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 3층 서원당

## 대주제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밀교

### 1. 불공

2. 개회사 한국밀교학회 학회장 효명 정사

3. 인사말 불교총지종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

4. 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내빈 소개 및 단체 사진 촬영

### 5. 주제발표

제1주제 원정대성사 행장과 사상

제2주제 한국밀교의 전개에 따른 육자진언 문물의 현황과 특징  
(12:00~13:00 점심 공양)

제3주제 인도후기밀교에서 기술하는 밀교의 위상과 의의

제4주제 불정존승다라니에 관하여 (14:30~14:45 휴식)

제5주제 밀교법구의 상징성 -금강저를 중심으로-

제6주제 실록을 통해본 조선시대 불교의 밀교적 경향

### 6. 회향